

특허청24시

심사인력 대폭보강 특허처리기간 단축

“코카콜라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달러인데, 브랜드 가치는 무려 689억달러에 달합니다. 상표를 포함한 특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발명의 달,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김광림(金光琳·사진) 특허청장은 코카콜라사의 예를 들어 특허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설명했다.

“취임하고 놀란 것이 3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특허부문에서 세계 5~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력에 비해서도 특허 수준이 한수 위인 셈이지요” 높은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창의력과 발명 지향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 출원은 28만9,000건으로 세계 5위, 국제특허 출원은 2,318건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한국 특허청을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ISA)로 지정한 것도 이 같은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김 청장은 말했다.

특허출원을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이제 사라졌다.

“작년특허청에 출원된 28만9,000건 중 81.4%인 24만여 건이 인터넷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자 출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청장은 가장 큰 과제로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특허 처리기간은 23개월로 독일(10개월) 미국(14개월) 일본(21개월)보다 길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연간 350건으로 유럽(59건) 미국(70건) 일본(208건)에 비해 훨씬 많다. 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맞게 특허 처리기간을 줄이는 것이 최대 숙제인 것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간단한 심사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보강해 2005년까지 처리기간을 15개월, 1인당 처리건수를 250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 청장은 “특허수수료를 지금의 10배로 올려도 좋으니 특허처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수수료 수입으로 인건비를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에 따른 비용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허청24시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특허는 마라톤으로 보면 10km를 달린 것에 불과합니다. 완주를 못하고 중도에 주저 앉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김 청장은 이에 따라 “특허 이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권자와 자본을 연결해주고, 특허박람회, 우수특허 선정 등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산업은행 특허기술의 사업화·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특허기술투자조합결성

□ 김광립 특허청장과 정건용 한국산업은행총재는 5월 30일(수) 대덕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등록된 특허기술의 70%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화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조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 우수한 특허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평가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금 지원 능력과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IT 벤처투자(주)를 주관사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억 원 규모의 [특허기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IT분야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업무를 개시한다.

□ 양 기관은 금번 결성된 투자조합의 운영상태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다.